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6년 2~3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I

#### 다니던 병원 문 닫아도 내 진료기록 안전하고 편하게 확인

- 한방 의료기관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 14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온라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발급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 이용 편의도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진료기록발급포털) medichart.mohw.go.kr

- 아울러 2월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방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더 쉽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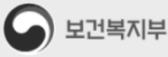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통신하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규칙 및 프로토콜의 집합

-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한방 분야까지 시스템을 확대하여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휴·폐업 진료기록이 필요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라며,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789. 의료정보정책과. 2026. 2. 3.

참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카드뉴스



## 이젠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발급받으세요!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 방법**



진료기록 발급 포털 사이트  
([medichart.mohw.go.kr](http://medichart.mohw.go.kr))에 접속하여,  
휴·폐업 의료기관 찾기 클릭

검색창을 통해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



\*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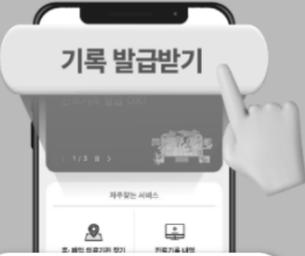
**단계별 발급 절차**



**STEP 1 포털 접속**



**STEP 2 본인 인증**



**STEP 3 기록 신청 및 발급**

## II

### AI 옷 입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선제대응력은 키우고 지자체 부담은 낮춘다

- 복지부, 지자체 대상 복지 분야 AI 사업 설명회 개최 -
- AI 기반 복지행정 도입으로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월 11일(수)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분야 인공지능(AI)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등 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행정 단계\*별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복지 분야 AI 추진 방향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 수요 발굴 → 상담 → 신청 → 조사 → 결정 → 사후관리, 활용지원체계 등

■ 설명회에서는 먼저 복지 분야 AI 활용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①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복지행정 AI와, ② AI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복지 분야 AI 활용 방향(안) 】



- ① 복지행정 시는 행정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국민 안내를 지원하는 시 안내도우미와 내부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지원 시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 시 안내도우미는 민원 응대, 서류 접수 등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업무를 시가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지원 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판단이나 특례 적용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용 누락을 예방하는 등 담당자의 판단을 보조한다.
- 복지행정 시를 활용하여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반복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② AI 상용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복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1) 고독사·고립 등 사회위기 해결을 위한 AI 심리케어, (2) 지역 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2개 분야의 7개 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다.
-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설계부터 현장 실증,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1~2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 상용화 지원사업 주요 내용(안) >**

분야	(1) 사회위기 해결을 위한 AI 심리케어 서비스	(2) 지역특화 복지안내 AI
지원기간	단기과제: 협약일~'26.12월, 장기과제: 협약일~'27.12월	
지원규모	'26년 65억 원(총 85억 원)	'26년 20억 원(총 40억 원)
과제 수	5개 과제(단기 3, 장기 2)	2개 과제(장기 2)
지원대상	사회적 위기 해결, 복지 안내 서비스 등 AI 솔루션을 개발·적용·확산할 수 있는 AI·IoT 전문기업(컨소시엄)	
지원조건	사업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에 대해 매칭	

- 아울러, 복지부는 복지 분야 AI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간담회를 실시하여 AI의 실제 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는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발된 AI를 실증하는 정책실험실을 운영하여 AI의 정확도 등 성능을 검증하고 전국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단순 업무 효율 개선을 넘어 선제적·예방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822. 복지정보운영과. 2026. 2. 11.

### Ⅲ

####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 사례 중심 교육 강화로 신고 실효성 제고, 수어 통역·영문 제작 등 접근성 확대 -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 7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자료는 그간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실제 신고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교육자료에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교육자료도 제작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 대상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2월중 배포하였고, 동영상은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 등에도 탑재하여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 및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적인 예방장치이며,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장애인학대 대응은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의무자 제도는 가장 중요한 안정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현장 대응체계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22.)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확대 등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848. 장애인권익지원과. 2026. 2. 20

**참고** | **교육 이수 가능 사이트 안내** (※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과정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이상
- 교육 이수 가능 대표 사이트

연번	사이트명	주소(URL)	비고
1	서울시평생학습포털	<a href="https://sll.seoul.go.kr/">https://sll.seoul.go.kr/</a>	
2	경기도평생학습포털	<a href="https://www.gseek.kr/">https://www.gseek.kr/</a>	
3	대전광역시평생학습통합플랫폼	<a href="https://nurim.dile.or.kr/">https://nurim.dile.or.kr/</a>	
4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a href="https://sjlms.sri.re.kr/">https://sjlms.sri.re.kr/</a>	
5	온국민평생배움터	<a href="https://www.all.go.kr/">https://www.all.go.kr/</a>	
6	나라배움터	<a href="https://e-learning.nhi.go.kr/">https://e-learning.nhi.go.kr/</a>	
7	교육부 중앙교육연구원	<a href="https://neti.go.kr/">https://neti.go.kr/</a>	
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	<a href="https://welfarekorea.com/">https://welfarekorea.com/</a>	
9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홈페이지	<a href="https://edu.kcpass.or.kr/">https://edu.kcpass.or.kr/</a>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직업치료사협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등 교육 사이트에서 이수 가능

## IV

### '25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역대 최대 279억 달러 달성

- 의약품 수출 사상 최초 100억 달러 돌파, 화장품 2년 연속 최대치 경신 -
- 올해 수출 304억 달러 목표로 수출 활성화 적극 지원 -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 의견 청취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3일(화) 오후 2시 시티타워 16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에서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계 동향 공유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한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수출기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HK이노엔, 알테오젠 (의료기기) 시지바이오, 뷰노, 미래컴퍼니, 원텍, (화장품) 올리브영, 코스맥스, 구다 이글로벨, 릴리커버 등 12개사

■ 간담회는 "26년 전망 및 수출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로 시작되었고, 각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애로사항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26년 전망 및 수출 활성화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5년 수출실적】

■ '25년 관세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으로 국내 주력산업 중 8위를 기록했다.

\* ('25 주요산업별 실적) ① 반도체(1,734억\$), ② 자동차(720억\$), ③ 일반기계(469억\$), ④ 석유제품(455억\$), ⑤ 석유화학(425억\$), ⑥ 선박(318억\$), ⑦ 철강(303억\$), ⑧ 바이오헬스(279억\$)

【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규모('21~'25년) 】

(단위: 억 달러, %)

품 목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가율
바이오헬스	254.5 <sup>역대2위</sup>	242.4	218.1	252.6	278.7 <sup>역대1위</sup>	2.3
의 약 품	70.4	80.8	75.6	92.7	104.1 <sup>역대1위</sup>	10.3
의료기기	92.2 <sup>역대1위</sup>	82.1	57.9	58.1	60.4	△10.0
일반 의료기기	44.6	48.5	49.9	51.3	53.3	4.5
체외 진단기기	47.6	33.5	8.0	6.9	7.1	△37.8
화 장 품	91.8	79.5	84.6	101.8	114.2 <sup>역대1위</sup>	5.6

- 의약품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의 벽을 넘어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의약품 수출의 62.6%를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면서 최근 10년간 약 10배 증가한 결과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스위스, 헝가리가 주요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39.5%를 차지하면서 선진 시장\*\*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15년 6.7억 달러 → '20년 34.9억 달러(약 5배) → '25년 65.2억 달러(약 10배)

\*\* (미국) '21년 16.0% → '25년 18.5%, (EU) '21년 26.9% → '25년 33.2% 등

- 의료기기는 체외진단기기가 수출회복세로 전환했고, 일반의료기기도 꾸준한 성장세로 약진하는 한편,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전체 수출의 33.1%를 차지하여 상위 1~3위를 유지하였다.

- 화장품은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한류 영향에 K-뷰티 인기가 더해져 '25년 수출액이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102억 달러) 대비 12.2% 증가해 '24년에 이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하였다. 특히, 미국이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올라서는 한편, 동남아·중동·유럽 등 시장 다변화\*\*도 이어가고 있다.

\* 상위 3개국 수출액(억 달러): 미국 '24년 19.0 → '25년 21.8, 중국 '24년 24.9 → '25년 20.2, 일본 '24년 10.4 → '25년 10.9

\*\* 상위 5개국 외 수출 비중(%): '21년 19.5 → '22년 25.0 → '23년 31.5 → '24년 35.8 → '25년 43.4

## 【'26년 수출전망】

- 복지부는 '26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목표치를 304억 달러\*(+9.1%)로 발표했다.

\* ('26년 목표) 의약품 117억 달러(+12.4%), 의료기기 62억 달러(+2.7%), 화장품 125억 달러(+9.5%)

- 의약품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 추세\*와 세계 1위 위탁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역량을 기반으로 국산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 수출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32년, 58개)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개발 활성화, ▲마-EU 등 바이오시밀러 처방 장려 등

- 의료기기는 고령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세에 따라 AI 기술을 접목한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방사선 촬영기기가 진단 정확도와 효율성 증대로 선진국 및 신흥 시장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화장품은 K-뷰티의 글로벌 인지도와 온-오프라인 접근성이 모두 상승하면서 주요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활성화 지원 계획】

- 복지부는 작년보다 3.5배 증가한 2,338억 원\*을 투입하여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해외 규제 대응·컨설팅·마케팅·현지 거점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25년 685억 원 → '26년 2,338억 원(+1,653억 원, 241.3%)

## < 1. 제약바이오 >

### ①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 산업계 건의, 그간의 운영 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기업 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역량 있는 국내 의약품 파이프라인\*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여 글로벌 상업화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지속 조성한다.

\* 국가별 파이프라인('24) : (1위) 미국 11,200개, (2위) 중국 6,098개, (3위) 한국 3,233개

- 특히, 올해에는 신약 개발시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임상3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화펀드를 1,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1조 원 이상 보건의로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해 민간 R&D 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 ② 공급망 강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제약바이오산업의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원부자재 확보,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시설 지원, 핵심 의약품 비축지원 등 통합적 안정화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① 신규바이오 원부자재 공급 안정화 지원 (10개사, 100억 원) ② 신규원료구매 다변화 지원 (10개사, 15억 원) ③ 확대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4개사, 38억 원) ④ 신규핵심의약품 비축 지원 (5개사, 5억 원) ⑤ 신규수출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 (15개사, 81억 원)

## ③ 글로벌 진출 및 수출 다변화 지원 강화

- 그동안 제약산업의 중심이었던 제네릭-바이오시밀러 단계를 넘어 혁신신약 중심의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① 협력 기반 개방형혁신(Open Inovation)-사업화 지원(Consulting)-③ 국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Inbound)-④ 글로벌 거점 진출(Outbound)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유망기술 보유 국내기업과 한국시장에 관심이 높은 글로벌 선도 기업 간 협업을 위한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 사업을 도입하고, 오픈이노베이션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가별 규제 변화 정보 제공 및 특허·법무·세무·관세·유통채널 다변화 등 컨설팅 제공도 강화한다.

\* △[로슈] 한-스위스 바이오 패스(4개사), △[애브비] 바이오텍 이노베이터 어워드(2개사), △[암젠] 골든티켓(2개사), △[노보 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3개사), △[엠에스디] 파트너링 데이(5개사), △[아스트라제네카] 프로젝트 노바(상시모집)

\*\* (CDA체결前) 2억 원×20개사 → (CDA·MTA체결) 4억 원×8개사 → (기술거래체결·공동연구 등) 8억 원×4개사

- 국내에서도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보스턴 CIC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25. 30개사, → '26. 40개사)하며,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파견, 글로벌 의학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JLABS KOREA) '24년 도입, 연 12개 기업 발굴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기반 스케일업 지원, '26년 신규R&D) 글로벌 프로그램 연계 국내 멘토 기업 지원

## 〈 2. 의료기기 〉

### 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 연구개발부터 사업화·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MDCC\* 등을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edical Device Consulting Council): 인허가·제도, 연구개발·임상, 해외진출, 사업화, 법률·회계 등 8개 분야 202명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아울러 글로벌 기업·병원·투자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뉴 임팩트 코리아(New Impact Korea)\*’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검증과 시장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 동향·규제·시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메드텍 인사이트(MedTech Insight)’ 개최를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MedTech Innovator APAC(아시아·태평양 최대 의료기기·디지털헬스 액셀러레이터) 협력 기반 국내 유망 기업(16개사) 토론형 발표 및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3.20,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

### ②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잠재력 제고

-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 확대된다.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AI 기반 수술로봇 이노베이션랩(‘26~’30) 구축을 통해 혁신기술 상용화와 차세대 수술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도 병원 기반 실증지원센터 6개소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컨설팅과 의료진 매칭을 통한 임상시험·실사용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임상 근거 확보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③ 시장 밀착형 수출 지원 강화

- 의료기기 수출 강화를 위해 주요 해외시장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지 기반의 글로벌 진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휴스턴\*)에 기업 입주를 지원(10개사)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규제 대응 비용을 기업당 연 최대 2억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TMC(Texas Medical Center) :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클러스터, 50개 이상의 병원 연구기관·의과대학이 집적된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거점

- 이 밖에도 불확실한 국제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여 마케팅 비용과 수출 부대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돕는다. 더불어, 금년부터 해외 의료진 대상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의료기관·교육훈련시설·국제 의학회 연계 교육을 통해 중점 품목의 해외 사용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제품 신뢰도와 시장 확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 3. 화장품 〉

#### 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수출 유망국가 현지인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 개발을 위해 피부특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원료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원료 품질 검사(30개사), 효능·안전성 시험(15개사), 시설·장비(5개사)를 지원한다.

\*기존 18개국 16,694명 피부특성 정보 → '26년 500명(필리핀) 추가 확보

- 또한 화장품산업 발전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화장품산업육성지원법안\*」 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화장품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지원, 시험연구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② 수출 규제 장벽 극복 지원

- 국산화장품 수입국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국내 다빈도 원료 안전성평가 정보(연 400종 추가) 등을 화장품원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중 AI 기술을 적용시켜 수출 정보를 더욱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① 국가별(65개국) 규제 원료 DB(4만 7천종), ② 유통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결과 DB(3,712종), ③ 안전성평가 정보가 없는 원료에 대한 독성(간독성, 유전독성 등 23개) 예측 정보(3만종)

- 또한 올해부터 비처방의약품(OTC)\* 제조소 등록 컨설팅(25개사)을 시작하여 미국에 기능성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Over-the-Counter)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자외선차단, 여드름개선, 탈모개선 등을 OTC로 분류

### ③ 수출 국가 다변화 및 물류 부담 경감 지원

-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화장품산업정보포털(Allcos)에 글로벌 시장 동향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인·허가 관련 컨설팅(30개 품목)을 지원하며, 해외 인·허가제도 설명 영상(캐나다, 호주, 사우디 아라비아 등 6개국)을 제공한다.

\*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연 14개국, 시장정보), 「수출 가이드북」(연 22개국, 수출절차) 등

- 또한 LA 화장품 전용 물류 거점 구축 등 미국 내 8개 지역(300개사)에서 물품 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배송 등 대미 수출 확대를 중점 지원한다.

### ④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진출 단계별 도약 지원

- 중소 화장품기업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4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1단계는 유망 중소 화장품기업이 국내에 설치된 'K-뷰티플레이'(체험홍보관)에 입점하여 방한 외국인과 바이어 등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부산(서면) 추가 개소('26.5월), 기 운영 중인 명동관 및 홍대관 개편('26. 下)

- 2단계는 K뷰티 확산세가 뚜렷한 10개국(전년 대비 6개국 증)에 '팝업스토어'(10일 내)를 설치하여 해외진출의 시험 무대(Test Bed)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는 팝업스토어 운영 등으로 시장성이 검증된 6개국(전년 대비 2개국 증)에 '플래그십스토어'(상설)를 운영하여 현지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

- 마지막 4단계는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미국(뉴욕), 프랑스(파리)에 'K뷰티 플래그십 허브'를 신규 런칭하여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면서 최신 K뷰티 트렌드를 전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온라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글로벌 SNS 플랫폼에서 활용할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 이형훈 제2차관은 “세계1위 위탁생산역량과 K-뷰티의 선풍적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산 바이오의약품, 미용 의 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3870 새글'25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역대 최대 279억 달러 달성 제약바이오산업과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870. 제약바이오산업과. 2026. 3. 3.